

22. 청빈한 삶을 결심(44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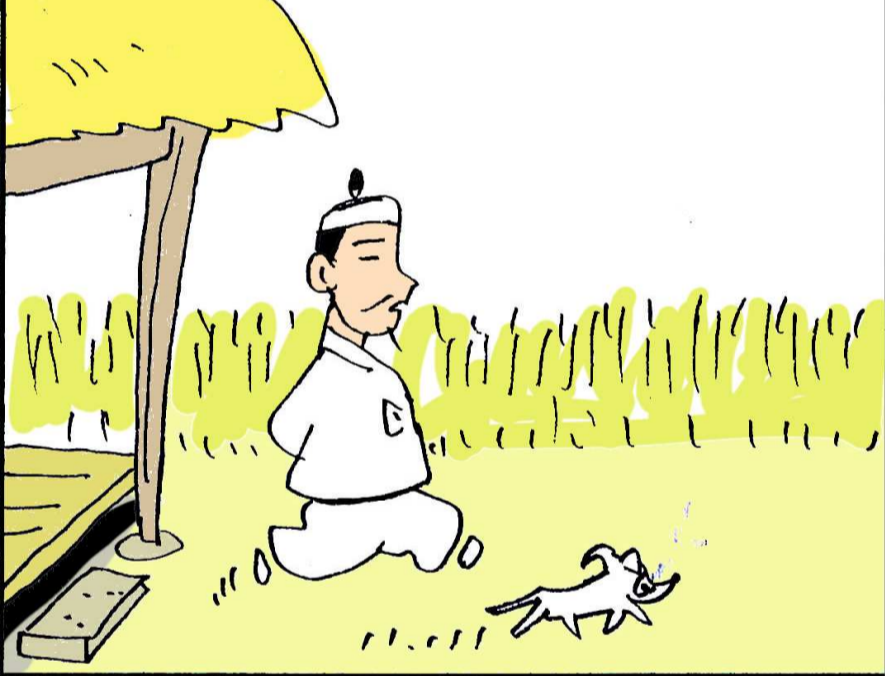
빈궁은 선비의 멋있는 삶이다.



오히려 사람의 낙은 부귀보다는 가난한 데 있는 것이다



경제생활에 무심하란 것이 아니다. 그건 무능이다.



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에 대비하여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.



농사 일에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.



퇴계는 집안의 경제생활을 꼼꼼히 챙겼으며 쓸 곳과 써서는 안될 곳을 엄격히 구분하였다.

